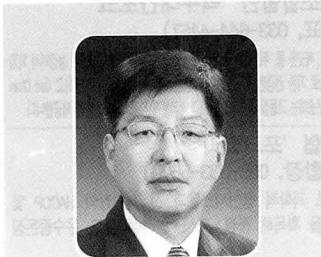




가축분뇨 자원화 및 해양배출 저감위한 정책 방향



이 상 철 팀장
농림부 자연순환농업팀

1. 서 언

최근 육상폐기물 투기해역의 수산물에서 이물질,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바다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어업인 및 환경단체가 조속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하는 등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나아가서 특정물질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해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 협약(런던협약 '72)이 발효(27개국 가입, '06. 3. 24)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 해양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1년까지 해양배출 물량의 감축계획을 수립(06.1월)함에 따라 해양배출량이 많은 양돈분뇨 처리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 감축목표 : ('04) 9,749천톤 → ('07) 8,000 → (2011) 4,000

• 가축분뇨는 2012년부터 전면 해양투기 중단 계획

※가축분뇨 해양배출 물량 : ('05) 2,745천톤(배출량의 27.6%)

그러나 양돈협회의 '05년 전업 양돈농가 경영실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미 양돈농가의 두당 생산비가 18~20만원 가량이 되고 올해 들어 사료비 상승, 해양배출 비용 가격 인상이 예측되므로 분뇨처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06년에 마련한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 대책 및 각종 분뇨관련 정책을 통해 양돈농가가 현재의 수준보다 약간의 노력만 더해 준다면 분뇨처리에 관한 환경문제 및 해양배출 걱정없는 양돈업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한다. 여기에서는 현재 정부가 양돈분뇨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

획인 정책내용을 소개한다.

2. 가축분뇨 해양배출 현황 분석

- 가축분뇨 해양배출은 '97년부터 추진되어 10년 동안 급속히(50배 이상) 증가되고 있는 추세
 - 해양배출 처리능가는 2,900호로 양돈 농가(11천호)의 약 26%, 해양배출량은 3백만톤 수준으로 돼지분뇨 발생량의 약 17%
 - 배출해역이 가까운 경남북지역이 상대적으로 해양배출이 많음
 - ※전량 해양배출에 의존한 농가는 약 3% 수준임

- 가축분뇨 해양배출 농가의 경우 대부분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나 활용이 미흡한 실정
 - 돈가가 비교적 안정적이고, 그동안 해양배출 비용(11천원~22천원/톤)이 저렴하여 선호
 - 경종농가와 연계한 가축분뇨 퇴·액비의 수요확대를 위한 양질의 퇴·액비 공급, 전문유통주체 육성 등 체계적인 접근 미흡
- 가축분뇨 해양배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나, 총 물량 감축에 따라 해양배출업체에서 가축분뇨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배출단가 인상, 가축분뇨 수거 기피 등으로 이어질 전망
 - 일부 해양배출 농가에서는 2012년 이후에도 해양배출이 가능할 것으로 잘못 인식



▲ 최근 육상폐기물 투기해역의 수산물에서 이물질,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바다오염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해양배출량이 많은 양돈분뇨 처리 문제가 급부상하고 있다.

3. 가축분뇨 자원화 및 해양배출 저감 정책 방향

- 목표 : '07년부터 연차별로 50만톤씩 해양배출량을 감축
- 이행 방안
 - ①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설치 확대
 - 가축 밀집사육 지역 및 중규모 양돈농가가 많은 지역에서 가축분뇨를 체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07년에 1일 100톤 처리규모의 공동자원화 시설 2~4개소를 시범 설치하고 성과분석을 통해 '08년부터 확대 보급할 계획
 - 시중에 있는 자원화 시스템의 시설별 장단점 및 경제성을 분석하여 축산농가 여건에 적합한 모델을 제시하고 지자체에서는 사업대상자가 자



▲ 경종농가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06년부터 지자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주관으로 전국 50개소(44개 기관, 22개 작물)의 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다.



원화 시스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설치토록 지도

② 퇴·액비 살포조직 전문조직 육성

- 지역 농·축협, 영농조합법인, 민간 살포조직을 퇴·액비 유통주체(액비유통센터)로 육성하여 관련 시설 및 장비 구입을 지원(개소당 2억원 이내)

* '07년부터 액비유통센터 지원대상자는 연간 200ha 살포실적이 있거나, 계획을 갖고 있는 조직에 한함

- 우수 살포조직에 추가 장비(약 8천만원)를 지원하고 액비저장조를 5개이상 지원

③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 자연순환농업에 참여하는 농·축협, 영농조합법인을 선정하여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저리 융자로 지원

- 자금지원용도 : 선금금, 미수금, 시설 개보수, 토지 임대료, 소모성 경비 등

- 총사업비 200억원, 20억원 이내/개소(농축협은 자담 20%), 연리 2%, 3년거치 일시상환

* 최근 자연순환농업 추진 협약을 맺는 농·축협(18개소: 축협 18, 농협 20)이 확산

④ 액비살포량 확대 및 액비저장조 관리 강화

- 살포비 지원 : 퇴·액비를 살포하는 조직에 ha당 15만원을 지원, '06년 27천 ha (40억원)지원하였고, '07년에는 40천 ha(60억원)를 지원할 계획

- 액비살포량 액비저장조 지원은 '07년에 600개를 지원하되, 액비저장조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액비저장조 지원방향을 살포능력을 갖춘 축산·경종농가와 액비유통조직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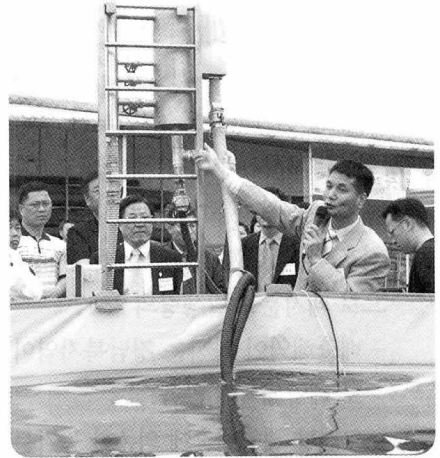
- 액비저장조 가동실태를 일제 조사('06. 12) 하여 '07년에 슬러지 제거 등 부실 저장조에 대한 정비 강화

⑤ 퇴·액비 처방서 발행 제도 개선

- 퇴·액비를 작물의 성장과 토양특성에 적합하게 살포토록 하기 위해 퇴·액비 살포시 반드시 처방서를 발급받도록 하고 살포조직은 처방서를 준수하여 살포토록 지도하고 있음

* 일부 처방서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는 농가(조직)가 있으나 처방서가 있어야 환경문제 등 민원에 대처할 수 있고, 농림부는 처방서 발급실적을 가축분뇨 관련 모든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

- 최근 토양 검정 민원업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① 토양검정이 어려운 시군의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의 농업토양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② 토양정보시스템에 필지별 토양정보가 없을 경우에는 첫째에 한해 가축분뇨 액비사용 조건표(농업과학기술원)의 작물별 표준시비량을 활용하여 처방서를 발급해 주고 있음



▲ 자연순환농업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심포지엄, 순회 세미나 및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⑥ 퇴·액비 시범포 운영 확대

- 경종농가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을 제공하기 위해 '06년부터 지자체, 시·군 농업기술센터, 농·축협 주관으로 전국 50개소(44개 기관, 22개 작물)의 시범포를 운영
- '07년에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수 시범포 추진 기관에 포상
- 시범포 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금년에 개소 수 확대 계획

⑦ 교육·홍보 강화

- 경종·축산농가, 학계, 연구기관, 등이 참석하여 자연순환농업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자연순환농업 활성화 심포지엄, 순회 세미나 및 포럼 개최
- 농협중앙회에서 농업 관련단체 및 지자체와 연대하여 전국적 운동으로 확산하고 자연순환농산물에 대한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
- 양돈협회 중심의 액비이용 농산물경진대회 등을 지속 개최하여 참여 경종농가의 의식을 고취
- 해양배출 감축을 위한 홍보용 포스터, 팸플릿 등 제작·보급
- * '06년 농업인의 날에서 자연순환농업 부스 설치 및 자연순환 농축산물 시식
- 농업연수원, 농진청, 농협, 양돈협회 등에서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다양한 교육 추진



▲ 자연순환농업의 성패는 경종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양질의 퇴·액비 생산에 노력하느냐에 달려 있다. 자연순환농업이 단지 양돈농가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업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4. 결 언

해양배출량이 전년에 비해 감소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다. 이제 양돈농가와 경종농가가 자연순환농업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고 있다고 자평한다. 정부는 자연순환농업 조기 정착과 해양배출 감축을 위해 꾸준하게 필요한 시책과 기술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분뇨처리방식을 도입해 나가고 특징적인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축산농가는 경종농가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양질의 퇴·액비 생산에 노력하여야 한다. 자연순환농업에 선도적으로 동참하는 경종농가를 위한 다양한 이벤트 마련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연순환농업이 단지 양돈농가를 비롯한 축산의 어려움 해결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농업의 건전성 확보 및 농촌다움의 유지를 위해 반드시 유지 발전되어야 할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각자가 위치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겠다. **양돈**